

디아 컨템포러리, 삼청동으로 이전하며 이소정 작가의 개인전으로 새 출발

"무의식과 꿈을 담아낸 독창적 회화의 세계 – 독일 뒤셀도르프 기반 이소정 작가의 한국 첫 전시"



이소정, Three-way conversation, 2020, Oil on canvas, 100x160cm

"15년간 싱가포르에서 한국 현대미술을 전문으로 소개해 온 디아 컨템포러리(DIA Contemporary)가 2024년 11월 14일 삼청동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재개관하며, 감각적이고 신선한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첫 전시로 **이소정 작가의 개인전 <<야간비행: Night Dreamer>>**을 선보인다. 이 전시는 독창적인 시각을 가진 동시대 작가들을 국내에 소개하고, 특히 해외에서 활동 중인 유망한 한국 작가를 발굴하려는 디아(DIA)의 비전을 담고 있다."

전시제목 : <<야간비행 : Night Dreamer>>

참여작가 : 이소정

프레스 프리뷰 : 2024년 11월 14일 (목) 오후 2시-4시

전시기간 : 2024년 11월 14일 (목) – 12월 21일 (토)

전시장소 : 디아 컨템포러리(DIA Contemporary), 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길 37, 2층

1. 전시 소개

이번 전시 <<야간비행: Night Dreamer>>는 뒤셀도르프에서 활동하며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소정 작가의 한국 첫 개인전으로, 11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삼청동의 디아 컨템포러리에서 열린다. 이 전시는 이소정의 작업 세계를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하며 그녀의 본격적인 한국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소정은 인물을 주요 소재로 하여 무의식과 꿈을 탐구하고, 감정의 깊이를 섬세하게 포착하여 화면에 담아낸다.

작가는 회화적 서사를 통해 인간의 내면에 깃든 감정과 경험을 드러내며, 자전적인 기억과 정서가 결합된 작품을 선보인다. 이소정의 회화는 인간의 무의식과 꿈꾸는 행위를 통해 행복, 불안, 고독, 소외 등 보편적인 감정의 다층적 의미를 탐색한다. 특히 그녀의 작품 속 인물은 작가 자신을 투영하며,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경계에서 마술적 사실주의 기법으로 재현된다. 현실과 어울리지 않을 듯한 초현실적 요소들이 인물과 결합되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을 자아내는 장면을 만들어낸다.

전시 제목 <<야간비행: Night Dreamer>>은 작가의 창작 과정을 은유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소정은 꿈속에 남아 있는 장면과 기억의 단편들,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상상력을 통해 독창적인 이미지를 창조한다. 그녀의 작품 속 커다란 눈망울과 생경한 표정, 그리고 몽환적인 배경은 어린 시절 경험과 만화에서 영감을 받은 특징적 요소로, 관람자에게 진솔한 감정과 긴장감을 전달한다. 이러한 장면들은 단순히 악몽의 형상을 넘어 인간이 경험하는 양극적 감정을 자극하며, 내면의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담아낸다.

작품 속 등장하는 종이비행기와 비옷 같은 오브제는 기억과 감정을 형상화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작가가 느끼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내적 공간을 나타내며,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무는 상징적 장치로 작용한다. 관람자는 이소정의 작품을 통해 현실을 넘어선 몽상가의 밤비행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새로운 시각적 여정을 만끽할 수 있다.

본 전시는 디아 컨템포러리가 삼청동에서 선보이는 첫 전시로, 이소정 작가와 함께 동시대의 다양한 감각과 감정을 담은 예술을 경험하게 하며 국내외 미술 애호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2. 작가 소개

이소정 (b.1993)

이소정은 인물 중심적인 구도를 서술하며, 일상에서 관찰되는 주변 풍경과 사물들을 캔버스 안으로 함께 배치시킴으로써, 이미지 사이를 탐구하는 서사 구조를 작동시킨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식을 통하여 도상과 풍경이 함께 발화하는 현장까지 살펴본다. 작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개인적인 상상의 이미지와 감정이 투영된 대상을 일상적인 삶으로 변모시켜 감정의 다면함을 교감하며, 보편적인 이야기 발화될 수 있도록 한다.

1993년 청주 출생인 이소정은 부산예고를 졸업하고, 이후 독일로 유학을 떠나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수학하며, 학사와 석사를 학위를 받았다. 2023년 석사 학위 재학중에 독일 드로스테(Galerie Droste)에서 개인전을 가지며, 성공적으로 독일 아트신에 데뷔하였다. 또한 나폴리 안나루마 갤러리(Annarumma Gallery, 2024), 베를린 오베이 아트 페이스(Obey arts pace, 2023), 베를린 카페엠(KPM, 2023), 홀츠비케데 뮤지엄 하우스 오페디케(Museum Haus Opherdicke, 2022), 쾰른 갤러리 비젠바흐(Galerie Biesenbach, 2022), 뒤셀도르프 베베카(BBK, 2021), 쾰른 브루흐 & 달라스(Bruch & Dallas, 2019)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며, 주목받고 있는 신예 작가이다.

3. 작품이미지



이소정, Wanderer, 2024, Oil on canvas, 100x160cm



이소정, Raum der Gedanken, 2024, oil on canvas, 180x140cm



이소정, The first, 2021, oil on canvas, 160x110cm

4. 전시포스터



5. 전시 서문

밤이 온다 (Here Comes the Night Time)

이성휘 (Sunghui Lee)

이소정의 회화는 꿈이나 무의식적인 것에서 출발한다. 그의 작업은 인간의 행동과 감정이 무의식에서 상당히 하게 비롯된다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과 연결 지어 살펴볼 수 있으며, 작가는 자신의 꿈과 무의식을 되짚어 보며 회화적 이미지로 기록한다. 스스로 악몽을 많이 꾸다고 말하는 작가는 자신이 꿈에서 본 이미지와 감정이 트라우마나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자,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그의 회화는 이를 시각적인 일기로 변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작가는 꿈 뿐만 아니라 고독이나 소외와 같은 감정 또한 회화를 통해 드러낸다. 또, 어린 시절부터 만화를 좋아한 작가는 인물의 감정이나 상황을 묘사함에 있어서 만화의 감수성과 시각적 표현 방식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인물의 크고 텅 빈 눈과 붉게 상기된 볼 표현은 인물의 감정과 상황을 낯설게 만들어 그의 회화를 사뭇 신비롭고 초현실적인 상상으로 이끈다. 그의 회화에는 몇몇 상징적인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예컨대, 연기, 모자, 곤충 채집망, 종이비행기, 헤드폰 등과 같은 사물이나 인물이 수영을 하거나 홀로 걷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것들은 작가의 무의식과 연결된 요소들로서 그가 회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무의식을 탐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소정의 회화는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여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악몽으로부터 시작

이소정은 자신이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꿈과 무의식에 대한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한다.¹ 그는 악몽을 자주 꾸다고 말한다. 초창기 그의 그림에는 미술사적인 레퍼런스가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그의 회화는 초기부터 자신의 악몽을 기록하고 추적하는데 몰두했다. 그의 회화 속에서 인물들은 불안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고독, 공포, 불안과 같은 감정을 가득 담은 얼굴을 하고 있다. 작가는 자신이 꿈 속에서 환각처럼 경험한 이미지들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 올리고자 몰두하는데, 그 이미지들은 암호나 상징 같은 요소들로 변환되곤 한다. 예컨대, 종이비행기는 어릴 적 종이접기 숙제로 종이비행기를 접던 경험에서 촉발되어 그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데, 작가는 떠도는 형상들을 종이비행기에 덧대기도 하고, 복잡하고 잡다한 공상들과 어딘가 불시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정한 심리를 투사하기도 한다. 또 종이배는 물에 닿으면 젖어 버리고 말지만, 작가는 무의식의 망망대해를 건너는 여정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머리에 종이배를 쓴 인물을 자주 등장시킨다. 모자나 우비는 미지의 외부 세계로부터 인물을 보호하는 수단이며, 곤충 채집망을 든 인물은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 허공을 휘젓는다. 또 인물의 입이나 눈에서 연기가 뿜어 나오는 묘사는 작가에 의하면 수면 중에 영혼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기반한 표현이다. 그의 회화에는 물도 자주 등장하는데 일상에서의 무력감이나 우울한 감정을 깊고 발이 닿지 않는 물

¹ 이소정의 작가노트, 2024.

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물 한가운데서 수영하는 인물의 상황은 스스로 빠져나오기에 결코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² 대부분 발강계 상기된 볼의 인물들은 옷을 겹겹이 꺼 입기도 하지만, 맨 살덩어리 그 자체로 등장하기도 한다. 작가는 원색 계통의 비비드한 색조를 많이 사용하지만, 거의 모든 그림에 등장하는 푸른 색조는 평온함보다는 긴장감을 유발시키며, 강박, 공포, 불확실성에 대한 생각들이 먼저 엄습하게 만든다. 밤, 어둠, 그림자의 영역에는 여지없이 푸른 색조가 사용되고 있다.

꿈에서 본 것

이소정은 자신의 회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른 인물들로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하였다. 즉, 그의 회화는 보편적인 인간의 내면적 불안이나 갈등, 현실과 꿈의 관계로 일반화시키기 보다는 작가 개인의 무의식이나 심리에 몰입해 있는 그림인 것이다. 이소정이 관심 있는 작가 중 하나로 꼽기도 한 루프레흐트 폰 카우프만(Ruprecht Von Kaufmann)과 비교하여 본다면, 카우프만이 그리는 인물들은 작가의 자전적 경험과 감정을 우선시 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인간 경험이라 할 수 있는 불안, 소외, 정체성 문제와 같은 보다 넓은 주제로 확장된다. 예컨대, 카우프만이 그린 잠이 든 인물 그림에서 잠은 현실 세계의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도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소정의 회화 속에서 잠자는 인물은 꿈의 영역으로 진입하여 꿈 속을 배회하는 인물에 더 가까워 보인다. 무의식의 세계를 여정 중인, 좀 더 환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이다. 또 그림 속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을 유추하기에는 작가가 주는 단서가 부분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의 회화가 담고 있는 내러티브는 모호하고 파편적이다. 만약 이소정이 자신이 꿈에서 본 것, 즉 자신의 의식 영역으로 떠오른 무의식에 상상력을 동원하여 서사를 추가했다면 그의 그림은 훨씬 묘사적이고 복잡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소정의 회화는 작가의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무의식의 이미지를 끌어 올린 결과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정지시킨 화면처럼 전후 정황을 보여주지 않고 꿈의 어떤 순간만을 포착하고 있다. 또 인물을 둘러싼 배경 부분은 대부분 단순하게 묘사되거나 아예 색면 처리가 되어 있는 편이다. 한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공간적 묘사는 일종의 상징적인 장치이기도 한데, 작가는 자신의 회화 속 공간들이 영화의 한 장면을 맥락 없이 빌려온 것처럼 등장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소화되지 못한 감정의 덩어리들이 쌓이고 쌓여 큰 돌이 되거나 깊은 웅덩이, 혹은 해괴한 건축물로 등장하기도 한다.³

눈의 상징성

어릴 때부터 이소정은 만화를 좋아했다고 한다. 그는 특히 이토 준지의 <소용돌이>와 같은 공포 만화를 즐겨 보곤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공포 만화에서 꿈과 무의식은 독특하고 기괴한 방식으로 묘사되곤 한

² 위의 작가노트.

³ 위의 작가노트.

다. 예를 들어 <소용돌이>에서 인물들은 기괴한 소용돌이 현상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변이하는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내면적 욕망, 공포, 강박, 광기 등은 인물의 표정, 특히 눈을 통해서 표현된다. 사람들의 눈 속에 소용돌이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신체를 잠식하고 정신을 변형시키곤 하는데, 이는 무의식적인 공포나 강박이 시각적으로는 눈을 통해 표현된다는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토 준지는 인물들의 눈을 매우 극단적이고 표현적으로 묘사하는데 공포에 질린 얼굴은 커다란 눈으로 놀라움을 표현하며, 눈동자가 크게 확장된 모습은 강한 충격과 극한의 두려움을 상징한다. 이처럼 공포 만화에서 눈은 인물의 정신적인 혼란과 불안,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분열을 나타내곤 한다. 이소정의 회화 속 인물들도 눈을 통해서 불안이나 혼란 등 다양한 감정과 심리를 드러낸다. 작가는 동그랗고 공허한 눈이나 비명을 지르는 듯한 표정으로 악몽에서 깨어난 상황 또는 악몽의 한 장면을 나타내곤 하였다.⁴ 흥미로운 것은 거의 모든 인물들의 눈이 푸른색 동공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인데, 최근 그림에서는 여전히 푸른 색조로 표현되지만, 인물의 눈이 선명하게 그려지기 보다는 해골 윤곽에 가깝게 텅 빈 동굴처럼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텅 빈 눈 때문에 인물은 마치 시각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 신작 <The voice who lives in>(2024)과 같은 작품에서는 만화 캐릭터처럼 크고 등근 눈을 가진 인물의 눈에 투명하면서도 흐릿한 이미지가 투영되고 있는데 이때 눈은 감정이나 심리의 표출보다는, 인물이 쓴 모자에 난 창문과 연결되어 무의식을 향한 창이자 통로처럼 여겨진다. 즉, 이 작품에서 인물의 눈은 감정과 심리가 드러나는 신체기관이기 보다는 그의 회화를 무의식의 세계로 연결시켜주는 수단이자 회화적 공간을 확장하는 통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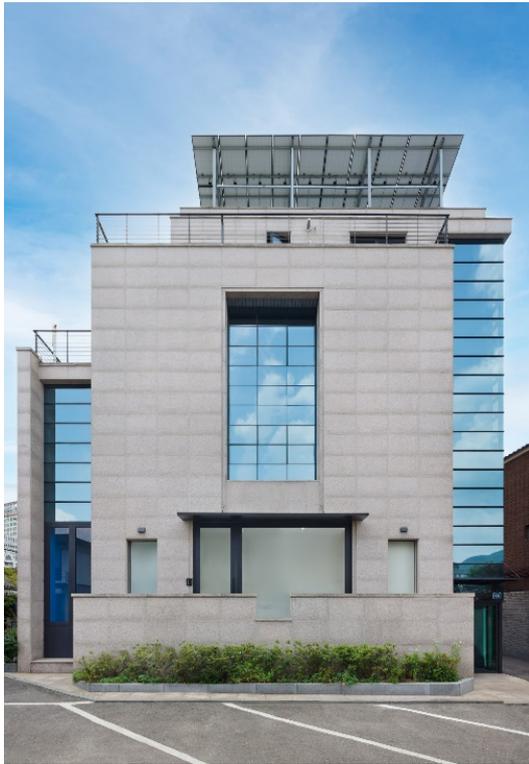
밤이 온다 (Here Comes the Night Time)

이소정 회화의 출발점이자 또 다른 가능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밤이라는 시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소정의 회화에서 숲, 들판, 물과 같은 공간적 배경은 중요하게 등장하지만, 아직 밤이라는 시간 자체는 잠이나 꿈에 비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소정의 회화는 악몽을 통해 밤의 이미지가 낮으로, 또 낮의 이미지가 밤으로 연결되며, 엄연히 무의식과 의식의 영역을 오가는 시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밤(무의식)의 영역과 낮(의식)의 영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회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꿈과 무의식이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 올려져야 하는데, 이때 밤은 악몽이 지배하는 불안과 혼돈의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미지를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려주는 잠재적인 시간이기도 하다. 또 밤의 시간은 훨씬 더 강한 감정적 경험을 유발시키곤 하는데, 억압된 감정과 상처를 멜랑콜리로 이끌기도 하며, 개인에게서 창조적 영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소정의 회화에서 밤은 악몽이 지배하지만, 동시에 악몽으로부터의 해방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양면적인 존재인 것이다.⁵

⁴ 위의 작가노트.

⁵ 이 글의 제목은 록밴드 아케이드 파이어(Arcade Fire)의 노래 <Here Comes the Night Time>(2013)에서 인용하였다. 이 노래에서 밤은 혼란과 무질서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해방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하는 양면적인 존재다. 이 노래는 현실 세계에서의 불평등과 고통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종교적 믿음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6. Discover Inspiring Artistry



Discover 발굴 | 2010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갤러리 휴(Huee)는 지난 15년 동안 싱가포르 현대미술 현장의 최전선에서 있으며, 창의적인 예술을 통해 변혁적인 힘을 경험하였다. 지난 십수 년간 섬세하게 기획된 전시를 통해 총 200명에 이르는 한국 작가들을 싱가포르에 소개하며, 한국 현대미술과 공예 작품을 발굴 및 육성하여 동시대 현대미술을 선도해 왔다. 2024년 서울에 Discover Inspiring Artistry(이하 디아, DIA)를 개관하여, 현대 미술의 탐험과 혁신적인 변화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한다. 디아(DIA)는 예술의 경계를 넓히고 창의적이며 신중하게 선별된 기획 전시를 선보인다. 그리고 누구나 디아에서 예상치 못한 예술의 만남과 흥미로운 미적 발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Inspiring 영감 | 창의성에는 한계가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영감의 세계는 감동을 일으키고 깊은 생각을 유도한다. 디아는 독창적인 예술적 재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예술계의 혁신과 영감 그리고 지속적인 진화를 촉진하는 비전 아래 예술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전시를 선보이고자 한다. 또한 실험적으로 도전하고 의미 있는 예술적 대화를 유도하는 활기찬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현재의 트렌드나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 예술에 대한 접근성과 포괄성을 제한하는 장벽을 적극적으로 허물고, 다채로운 분야와 관점의 예술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들의 예술적 표현을 풍부하게 육성하고 지원한다.

Artistry 예술성 | 디아에서는 전 세계의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지닌 우월함과 창의성이 최대한 돋보일 수 있는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작가들의 비전과 혁신을 담아 각별하게 선정된 작품과 함께 무한한 예술적 표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전시 기획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각 전시와 작품에 담긴 열정을 함께 감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며, 단순한 전시공간 이상의 역할을 넘어 진정한 예술 애호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7. 전시 문의

[담당자]

이윤정 | yoon@diacontemporary.com | 010-9387-0815

[작품이미지 및 전시 전경]

구글드라이브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주소를 첨부해드립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JQOvlea2WqY2C9YkFGsO_P_rNoCTI6l7?usp=drive_link

작품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작품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저작권 표기를 요청드립니다.

© Artist and DIA Contemporary

[디아 컨템포러리 DIA Contemporary]

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7, 2층

www.diacontemporary.com | info@diacontemporary.com | +82 2 2235 2822